

대학에서 교수-학습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점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박완성



1. 들어가며

강의를 잘 해 보고 싶은 것은 모든 교수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그런데 자신의 전공영역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신감 있어 하지만, 실제로 대학교수들만큼 각종 교수법에 대한 교육에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대학의 교육기능 강화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자의 연구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을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 하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갖

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들은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향후 2016년에는 대학진학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학의 구조조정이 당연시 되고 있다(2022년에는 약 100여개의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 유현숙, 임후남, 서영인, 2011).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질 보장의 방편으로 정부차원에서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성과평가가 투입과 여건 중심 평가에서 과정과 산출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대학교육의 과정과 교육성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평가가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 요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밝혀진 결과이다(유현숙 외, 2013).

위기와 성장의 기로에 놓인 현실에서,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제도개선, 재정투자 이외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우수한 교수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와 교수-학습 지원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육의 역량 강화는 교수-학습과정의 내실화에 근거하여 수업혁신을 이루고 학생들의 기초능력 함양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의 문제점 진단

교육의 구성요소는 교수자, 학습자,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3가지 차원에서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수 차원

첫째, 학생이 만족하는 학습 및 수업방법 적용이 미흡하다.

잘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교수역량과 교수지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전문가인 교수들은 교육학적 지식습득이나 교육과정의 이수 없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강의목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의 종류, 학생들의 학습과의 연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업활동은 구체적으로 수업준비, 수업참여, 추수활동(평가/시험)으로 구성되며 전통적으로 수업에 대한 주도권은 교수자에게 있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 방식이 주

이슈진단 및 분석

를 이루었다. 그러나 구성주의 이론의 등장과 함께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이 소개되면서 교수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에게로 전환되고 있다. 좋은 수업은 잘 조직화되어 지식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학생 간의 의미 생성적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개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교수학습과정에서의 교수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저조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된 ‘한국 대학생 학습과정 분석 연구(2010~2012년)’에 의하면,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3년간 조사에서 모두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수학습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채점의 공정성, 적절한 수업자료의 활용, 강의 설명과 관련하여 강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교수의 피드백, 학습동기 자극 등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측면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교수 행위만큼이나 대학생의 학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의 함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결과는 우리의 대학교육이 내용 전달과 이해에 머물러 있어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수준에서의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습 차원

첫째, 기초학습능력 저하 문제가 야기된다.

대학교육의 핵심주체인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기초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대학의 수 급증, 대학 진학률의 급증(1990년 33.2% → 2010년 79%)으로 인한 대증적 고등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유현숙, 임후남, 서영인, 2011). 이에 많은 학교에서는 대학에 유입되는 학생들의 학업준비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입생들을 위한 세미나, 기초인문학, 의사소통을 위한 교과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수동적인 학습참여와 자기주도 학습경험의 부족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년에 걸쳐 실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 대학의 질적 제고 노력의 결과로 전공분야 지식과 능력 향상, 자신에 대한 이해 능력, 타인과의 협동 능력의 순으로 학습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판적·분석적 사고

력,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 등 고등인지능력과 정보기술 사용능력과 양적 자료분석능력의 향상도는 낮았으며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을 통한 외국어능력 향상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수업 중 활동과 관련하여 학습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수업 중 질문, 토론 및 토의학습에 소극적이었으며, 예습/복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자기주도학습 경험은 대학생의 지적, 정의적 성장을 촉진하고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나 조사결과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멘토링, 튜터링 등의 활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주로 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결과로 학생이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과 함께 적극적인 수업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참여도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의 수업운영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교육과정 차원

첫째, 학습과정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학생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개발이 미흡하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주도권은 가르치는 교수와 대학에 있었다. 즉, 교육과정 제공(수업계획서 계획 및 적용 등),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교수의 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이 만족하는 학습과 수업방법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적합한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업 외 교육활동에 대한 경험 기회와 지원이 부족하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수준은 높아진 데 비해 대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된 ‘한국 대학생 학습과정 분석 연구(2010~2012년)’에 의하면, 학습성과 분석결과 학생들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자기이해 역량은 학문적 소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 이외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역량들로 노동시장에서 인재 선발 시 중요한 역량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수업 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조직생활에 융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이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3. 개선안

첫째, 일방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강의촬영 및 분석을 권장한다.

짧은 시간에 교수법에 대한 통찰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강의 촬영 및 분석이 아닐까 판단된다. 그런데 강의 컨설팅을 해보면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익숙해져 있다. 내 자신의 현학적인 지식을 유감없이 전하고 나면 교수자는 살맛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했다는 자신감에 빠져 강의실을 나온다. 그런데 학습자는 어떤가? 대학에서의 교육이 강의실에서 이론에 그치는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학생들의 변화나, 이 사회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의실에서의 지식이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 되려면 수업현장에서 학생들과 교류가 일어나야 하며 이러한 교수방법이 수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강의를 촬영해서 한 번 들여다본다면 교수가 얼마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없이 교수자 위주의 수업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교수법 전문가는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학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할까에 고민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의 주체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매력적이고 학습자의 기억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수자는 학습자의 동기유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의실에서 수업의 도입부분에서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위한 교수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거나 학회나 여러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많다. 그런데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와 학회에서의 발표는 여러 면에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는 오늘 가르칠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목표를 명확히 하여 학습자의 도달점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수자들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의 도입부분에서 ‘이번 수업은 참 재미있겠구나’, ‘뭔가 얻어가겠구나’, ‘나의 삶에 있어 이런 이러한 부분에서 써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학생들을 동기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학회에서의 발표도 이런 생각이 삽입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수업에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라고 물어 교수가 이번 시간 수업의 출발점을 모른다거나 “오늘은 제 몇 장 어느 주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배울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며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아왔다. 물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라고 물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수가 지난주에 한 수업을 회상하도록 하는 멘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 가

지고는 부족하다. 이번 시간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Entering Behavior)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진행한 수업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을 하든지 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동영상의 활용, 신문기사의 제시, 인터넷 기사의 활용, 자신의 경험 설명,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시사문제의 제시 등 다양하고 매력적인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교수학습지원 체제의 기능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대학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는 대학의 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수의 전문화된 수업 기술 신장과 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교육혁신대학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수적인 증가에 비해 대학교육의 혁신적 방법과 내용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유현숙 외, 2012).

해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이 측정과 평가를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혁하기 위한 정보 산출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러닝 및 교수매체 개발 및 제공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조형정 외, 2009).

따라서 교수학습개발센터가 대학의 질적 제고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직접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교수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수업활동과 수업 외 활동이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등 교육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수-학습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의 질 개선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학교육의 성과는 학교가 처한 여건이나 교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성과가 교육과정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와 대학연구의 영역에서 교수학습과정은 블랙박스로 다루어져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유현숙 외, 2012).

그러나 최근 교수학습역량 진단을 위한 국가수준의 검사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는 바,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개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컨설팅이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평가 인증이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획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아니라 학교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그에 근거

이슈진단 및 분석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처치가 이루어져야 교육효과가 최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 자체적인 환류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의 자체적인 진단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정보공시의 차원에서 2년을 주기로 자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경쟁대학이나 선진대학들의 교수-학습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자체 평가를 통한 컨설팅을 하고 이를 통해 질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자체적인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정윤 외(2011).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임후남·서영인(201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실태 분석 및 시사점. 대학교육 성과 제고의 방향과 과제 기본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수·학습과정 질 제고를 통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외(2012). 한국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Ⅲ). 한국교육개발원.
조형정 외(2009). 국내외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현황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19(2). pp 269-293.
엄미리(2013).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대학교원의 역량분석 및 교수지원 프로그램 방향성 제고.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제 11회 동계심포지엄 자료집.
이지은(2014). Myer의 '좋은 수업'의 준거로 분석한 A대학 학생들의 학습경험.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제 12회 동계심포지엄 자료집.

필자소개

박완성 | 삼육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방법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전공: 교육심리·교육방법)를 취득하였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사무국장, 삼육대학교 교무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삼육대학교 학부 교양학부 교직담당 교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입학관리본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진로상담』(공저), 『교직실무』, 『교육평가』,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대학교육개발센터의 경향과 발전방향', '중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연구', '학사경고대학생을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과 동료 멘토링의 효과',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부정적 정서, 학업적·사회적 적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중·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교수학습, 진로교육 및 상담, 교육심리 및 교육방법, 대학평가 등이다.